

■ 20주년·광주교대·광주MBC 공개강좌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 어느나라 출신인지는 중요치 않아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참여 여건 만들어야

## 베르너 샷세-안톤 솔츠 '고정관념을 깨자'

'과란 눈의 선비'로 불리는 베르너 샷세(70·한양대 석좌교수)와 젊은 학자 안톤 솔츠(40·조선대 교수)가 12일 아시아문화마루(콘서트홀)에서 만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광주MBC와 광주교육대가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다섯 번째 강좌를 위해 만난 두 사람은 주최 측에서 제시한 '서양인의 눈에 비친 아시아'라는 주제 대신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싶으며 대답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독일 태생으로 한국학을 전공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 사람은 동양화에 심취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F1 자동차 대회를 즐기는 신세대다.

같은 듯 다른 듯, 두 사람의 격의 없는 대답은 한 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진행은 유재한 전남대교수가 맡았다.

-한국에 살아보니 어떤가?

▲솔츠=한국사람은 서양인하면 대부분 미국사람인 줄 아는 것 같다. 택시를 타고 그렇고 거리에 나가도 그렇다. 서양인을 다 미국인으로 생각하는 건 스테레오타입(고정관념)이다.

▲샷세=나도 그런 경향이 많았다. 미국사람인지, 독일사람인지 그건 중요치 않다. 그냥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 세계 곳곳에 살아가듯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사는 것이다.

▲솔츠=한국말 하는 것도 그렇다. 한국 사람

은 서양사람이 한국말하면 내용은 신경 쓰지도 않고 '한국말 잘하네'라고만 생각한다. 서양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 문제는 다문화사회의 2세대. 20~30년 후를 생각해야한다. 유럽과 미국도 다문화사회에서 민족과 계층의 문제가 발생했다. 긍정적으로 풀릴 수도 있었지만 준비를 해야한다.

-서양인에 비친 한국인은 어떤가.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샷세=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항상 다문화국가(사회)였다. 세계적으로도 순수하게 단일민족인 국가는 하나도 없다. 역사관을 바꿔야한다. 김치가 좋은 예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는 중국에서 배추가 유입되기 전까지 한국엔 없었다. 또 15세기에 고추가 들어와서야 지금 형태의 김치가 만들어진다.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가 기존 문화를 없애는 건 아니다.

▲솔츠=프랑스인이 사랑하는 에펠탑도 그렇다. 에펠탑 짓을 때 파리시민의 반대가 심했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프랑스인이 자랑스러워하는 상징물이 되어있지 않는가.

▲샷세=외국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야한다. 또 외국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외국사람과 같이해야 한다.

▲솔츠=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한다. 스테레오타입도 없애고 사고방식도 달리하면 바꿀 수 있다. 눈을 감은 채 외국사람을 대하자. 피부색이

어떻고,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무슨 상관인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광주의 외국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솔츠=우선 외국사람들의 잠재력을 깨달았으면 한다. 잠재력을 발휘 못 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리가 없어서일 것이다. 이로부터 한국문화전당이 아니라 '아시아' 아닌가. 콘서트홀에 일을 해봐서 아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외국사람도 몇 사람 안 된다.

▲샷세=기본적인 것부터 개선해야한다. 엉터리 영어표현이 많다. 영어 하나라도 정확히 써야겠다. 외국인들이 우리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솔츠=능력 있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관심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안된다. 외국커뮤니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사업을 알리고 뭔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는가.

▲샷세=장기적인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동작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것이다.

대답이 끝나고 강좌에 참여한 시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다소 식상한 질문도 있었지만 그들은 웃는 낯으로 질문 하나하나에 유쾌하게 답했다. 문의 062-360-212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2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린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다섯 번째 강좌에서 베르너 샷세(왼쪽)와 안톤 솔츠가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자'는 주제로 대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물로 보는 조선의 이색 재판

# '선산에 몰래 쓴 묘 파가시오'

1869년 어느 날, 광주에 살고 있던 전의이씨(全義李氏) 후손들은 조상의 묘가 모셔진 경기도 고양 선산에서 몰래 쓴 묘의 무덤을 발견한다. 당시, 좋은 묘 자리를 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풍수설이 유행해 묘를 둘러싼 다툼이 많았다.

이에 이씨 후손들은 그 무덤의 후손인 고양 지역의 토호 김효길에게 묘를 이장할 것을 요구했고, 여의치 않자 4년 동안 길고 긴 소송을 진행한다. 무덤송사(訟事)는 토지와 노비 때문에 벌어진 송사와 함께 조선의 3대 송사로 손꼽힐 만큼 잦았다.



경기도 관찰사에게 올린 청원서

국립광주박물관 9월18일까지 '무덤송사'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17일~9월18일 이 이야기를 담은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무덤송사-몰래 쓴 무덤을 파 가시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이씨 후손이 흥선대원군에게 제출한 청원서, 경기도 관찰사에게 올린 청원서·첩보와 무덤배치도 등 관련 유물을 선보인다.

또 김효길이 위조한 위임장과 매매증서 등 1870~1873년까지 4년 동안 이어졌던 이 송사의 모든 것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한다.

이를 유물에는 관련 서류를 위조한 김효길의 행과 조상의 산소를 지켰던 이씨 후손들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담겨있다.

또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유물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 사회상도 이해할 수 있다. 문의 062-570-705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물과 색이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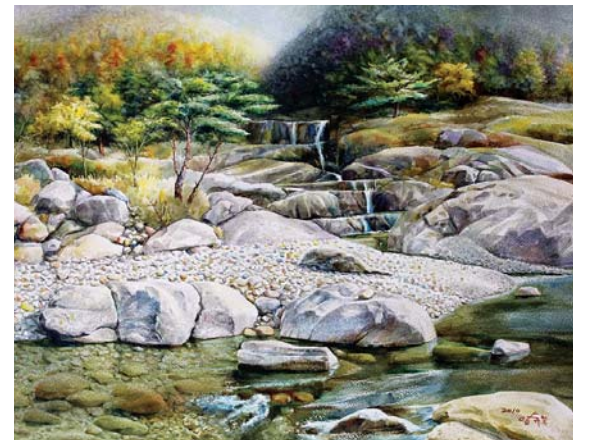
24일까지 수채화가 양규철 초대전

광주미술협회는 오는 2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원로 수채화가 양규철씨의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양씨는 '봄' 끝에 담긴 '자연'을 주제로 물과 색이 만나 빛내내는 단아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계곡의 아름다운 풍경과 눈 내린 시골 마을의 고즈넉함이 화폭을 장식한다.

세계 수채화대전, 대한민국수채화대전 등의 단체전과 9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미협, 한국수채화협회,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황토화, 광주·전남 수채화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7-142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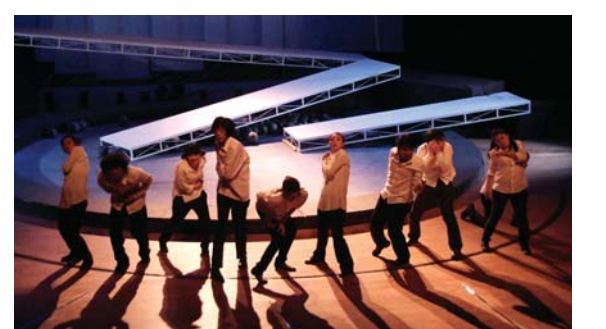
# 서울 극단 작은신화 '망각' 평화연극상 수상

지난 15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막을 내린 2011 광주평화연극제에서 서울 극단 '작은신화'의 '망각'(연출 반무섭)이 평화연극상을 수상했다.

평화연극상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을 기념해 선발된 시민심사단 31명이 선정했다.

5·18 당시의 모습과 함께 현재 우리 일상에서 만연하는 폭력의 문제를 반복과 변주를 통해 유쾌하게 표현해 낸 '망각'은 시민 평가단으로부터 '다소 무거운 주제를 잘 풀어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느끼게 해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5·18 무대에서 길을 물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평화연극제는 지역과 서울에서 참여한 8개 극단이 주최(광주



연극협회)측이 제작한 동일한 무대에서 '5월'을 주제로 각각 작품을 선보였다.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PACE Morden - 모던**

☎ 062-226-7567

ITALY

**ANTIQUE - 앤틱**

ITALY

**Classic - 클래식**

ITALY

| 화정동점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 본 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